

# 동아시아언어학자 최세진과 그의 활동

안 종 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창조의 력사였습니다.》(《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 292페이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주변 나라들의 언어를 학습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여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하여왔다.

중세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동아시아언어연구는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대외관계실현을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되어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였다.

특히 조선봉건왕조 초시기인 1393년에는 사역원이 개설되고 그안에 한학(한어, 흔히 말하는 중국어), 몽학(몽고어), 왜학(일본어), 녀진학(녀진어, 후에 청학으로 바뀐 청어)이 설치되어 동아시아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봉건정부의 관심 속에 꾸준히 진행되였다.

동아시아언어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역학이라고 하며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을 역학자라고 한다.

역학자에는 역관(통사)이 아닌 문신이나 혹은 역관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공적을 남긴 사람들이 속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역학자로서는 최세진(1468-1542)을 들수 있다.

대대로 역학을 한 집안의 대를 이어 역학자로 된 그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로 등용되였다.

그가 쓴 《사성통해》의 서문에는 《집안에서 전해내려오는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통해 그의 가정래력이 역학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국조방목》에 의하면 최세진은 관리로 등용되기 이전에 한학강이관\*으로 있었는데 한학강이관들은 그 출신이 관리 또는 량반계급의 자식들이였다.

\* 한학강이관은 1433년(세종15년)말에 나 어린 문신들에게 한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역원에 설치하였던 제도로서 성종이후에는 한학습독관이라고도 했다.

1492년 9월 갑술(《조선봉건왕조실록》 권 97, 성종 29년)조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온 정팔이 제의하기를 《...강이관 최세진이 고황제의 이름과 같으니 설을 축하하러 가는 사신을 시켜 물어오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당시 최세진이 한학강이관이였음을 밝힌 기록이 있다.

최세진은 1503년(연산군 9년) 8월에 역과가 아니라 문과에 합격하였다. 그보다 3개월 앞선 1503년 5월 계유일에는 사역원 제주 윤필상, 리세좌의 제의에 의하여 송평, 송창과 함께 수개월동안 우리 나라에 와서 머무르고있는 중국사신들에게서 한어를 전습받도록 추천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리창신\*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한것이였다.

\*리창신(李昌臣)은 임사홍(任士洪)과 함께 성종말기에 한어실력이 있다는것으로 하여 그들을 등용하려는 성종과 이것을 반대하는 문신들로 인하여 수년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역학자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한어에 능하여 성종과 중국사신과의 통역을 담당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1506년 3월 어전통역으로 공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때로부터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최세진은 16세기에 국어는 물론 한어와 리문에도 밝은 동아시아언어학자였다.

1515년(중종 10년) 11월 병신일에 령의정 류순은 한어와 리문교육을 장려하는 자리에서 《신은 보건대 현재 문관으로서 리문과 한어를 잘 알고있는 사람으로서는 오직 최세진 한사람뿐이므로 이 사람이 아니면... 중국의 관청들에 공문을 띄우거나 중국 조정의 공문에 회답할 문서를 단독으로 맡아서 손을 댈만 한 사람이 없는 형편이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라고 하여 최세진을 《문관》이라고 하면서 그의 자질을 인정하고있었고 1524년(중종 19년) 8월 갑진일의 기록에서는 최세진의 밑에 주를 달기를 《문신으로서 한어와 리문에 밝은 사람이 다.》라고 하였다.

최세진은 1517년(중종 12년)에 내첨사정(정3품당하관)에 강이원 교수를 겸하고있었고 1518년 7월에는 주청사 남곤을 따라 질정관으로서 명나라에 간 일이 있었다. 또 그는 1521년(중종 16년)에도 질정관으로서 명나라의 수도까지 갔다와서 책을 바친 일이 있고 문신만이 할수 있는 승문원의 직위도 력임하였다. 그는 중종시기에 명나라에서 보내온 문서들을 왕에게 전적으로 읽어주었을뿐아니라 명나라에 보내는 문서를 도맡아 작성한것으로 하여 《리문에 밝은 사람은 최세진뿐이다.》,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힘을 써서 한어를 썩 잘하였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모두 도맡아 지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리문과 한어에 있어서 뛰어난 존재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명나라에 가서 저지른 과오로 하여 고쳐임명하자는 사헌부의 제의를 물리치고 중종은 그를 그대로 등용하였던것이다.

최세진은 뛰어난 재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아시아언어학과 관련한 많은 문헌들을 남김으로써 중세 동아시아언어학연구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이룩하였다.

1515년(중종 10년)경에 간행된것으로 보이는 《번역로결대》와 《번역박통사》의 편찬은 그의 공적중에서 무시할수 없는 것이다.

고려시기부터 우리 나라에서 한어교과서로 쓰인 한문본 《로결대》와 《박통사》를 그가 번역하였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을 《번역로결대》와 《번역박통사》\*라고 한다. 《번역로결대》와 《번역박통사》는 우리 나라에서 운서이외에 편찬된 최초의 외국어교과서이다. 최초의 외국어교과서를 편찬하였다는데 동아시아언어학자로서의 그의 공적이 있다.

\*최세진은 《번역로결대》와 《번역박통사》를 저술하면서 《로결대》와 《박통사》의 한어원문의 모든 한자밑에 좌우로 두 종류의 한자음을 정음자로 적고 한어원문을 한 단락씩 끊어서 한어를 우리 말로 번역하여 두 줄로 기록하였다.

한자아래의 좌측음은 《홍무정운역훈》의 속음(곧 《사성통해》의 속음)이며 우측음은 16세기의 중국 북방음이었다. 이러한 한자음 표시방법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언해역학서들에서 전통으로 되었다.(후기의 역학서에는 좌측음을 《홍무정운역훈》의 정음으로 표기한 례도 있다.)

현존하는 《번역로결대》는 서문과 발문, 간행기록이 없으며 상, 하 2권 2책의 목판본으로서 1515년경에 간행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번역박통사》는 상, 중, 하 3권가운데서 상권만이 현존하고있는데 장수는 76장으로서 매 장 9행, 매 행 19자로 되어있다.

최세진은 《번역로결대》와 《번역박통사》를 간행한 다음 같은해에 《로결대》와 《박통사》에서 간단히 번역할수 없는 어려운 한자나 단어를 따로 모아 주석과 함께 문법적인 설명을 준 일종의 사전격인 《로박집람》\*도 간행하였다.

\*이 책은 범례, 단자해, 루자해, 로결대집람

(상, 하), 음의, 박통사집람(상, 중, 하) 총 57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모두 798개의 어휘에 대하여 해설하고있다.

《로박집람》은 최세진의 대표적인 동아시아언어학문헌의 하나로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의 한어음운학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박집람》의 뒤를 이어 1517년(중종 12년) 11월에는 《사성통해》를 완성하였는데 이 책의 부록에 《번역로결대박통사법례》가 수록되어있다.

최세진은 1536년(중종 31년)에 자획중심의 《운회옥편》을 편찬하였고 1539년(중종 34년) 7월에는 리문참고서인 《리문집람》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한어 및 리문관계의 공적 이외에 그는 1524년(중종 19년) 2월에 《친영의주》와 《책빈의주》를 우리 말로 번역하도록 어명을 받은 일이 있으며 1527년(중종 22년) 4월에는 국어사연구에서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

지하는 《훈몽자회》의 편찬을 완성하였다.

그는 1532년(중종 27년) 9월에는 《번역녀훈》을, 1537년(중종 32년) 12월에는 《소학편몽》을 썼으며 《언해효경》도 만들어 국어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남겼다.

품계가 2품인 중추부 동지사까지 지낸 그는 75살인 1542년(중종 37년) 2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최세진의 뒤를 이은 문신역학자들인 윤개, 주량우, 윤계 등도 16세기 전반기에 크게 활약하였지만 이들도 최세진만큼한 공적은 남기지 못하였다.

15세기의 이름난 역학자 성삼문, 신숙주 등의 뒤를 이어 특이한 출신의 역학자 최세진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언어학자였다고 할수 있다.

최세진이 남겨놓은 수많은 저술은 오늘 우리 국어사연구뿐만아니라 한어사연구 특히 한어음운사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